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⑱ 석굴암의 비밀 (2)



▶한줄 요약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부드가야에 있던 대각사의 〈대각상〉과 그 크기가 같다. 이 같은 유사성은 신라가 부처님 성도지임을 강조하려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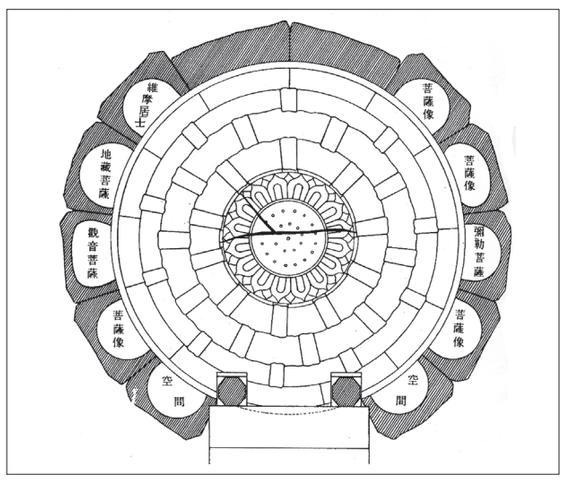
석굴암 본존불, 원조 '印대각상' 넘어서다

지난 연재에서는 석굴암 건축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아보았다. 어째서 화강암의 '돌' 건물을, 그것도 '원형'의 형태로, 토함산 그 높은 곳에 올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을까? 원형이라는 모양에 담겨있는 종교적 상징은 무엇일까?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지난 연재에) 풀어보았다.(도판① 돔Dome 형식의 천개와 천개를 둘러있는 감실 도안. 천개는 연꽃이 만개한 모습인데, 감실 공간은 마치 연꽃잎이 둘러 핀 것처럼 배치됐다. 도판② 석굴암 원실의 도면. 본 법당은 거대한 여의주의 공간이 구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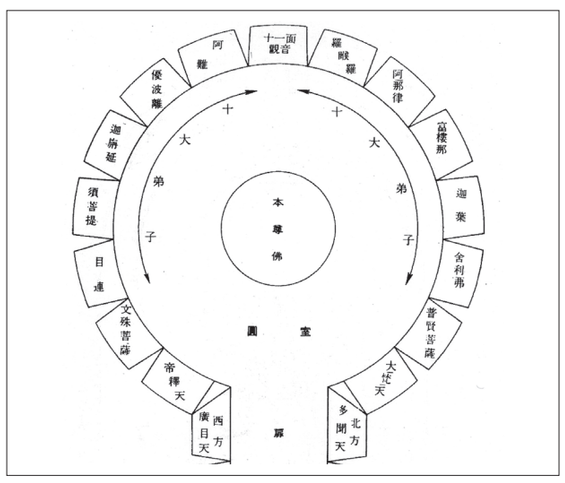
그럼, 이번 연재에서는 석굴암 내부 조형물 중에 가장 핵심인 본존불 〈석가모니대각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석굴암의 본존불은 〈석가여래상〉, 〈석가모니불상〉, 〈석가모니성도상〉, 〈항마촉지인상〉 등으로 불리는데, 본 연재에서는 〈석가모니대각상〉으로 지칭하겠다.

수많은 태어남과 그 윤회 속을 헤매었네/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이다 헤매이다 찾지 못했네/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라 … 아,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았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 났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갈애는 사라졌네.

–석가모니 붓다의 오도송



도판① 돔Dome 형식의 천개와 감실 도안.



도판② 석굴암 원실(圓實)의 도면


도판③ 항마촉지인의 〈석가모니대각상〉

보드가야 대각사의 〈대각상〉

적적성성(寂寂惺惺)의 투명함 · 지극히 평온한 법열 · 반응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 석가모니 붓다는 자신이 체득한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궁극의 깨달음)의 크기와 깊이는 "생각으로 헤아릴 길이 없고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말한다.

"내 마음은 관능적인 삶을 동경하는 망상에서 벗어났다.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풀려났으며, 무명에서 비롯된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같은 자유와 해탈 속에서 나는 명백히 깨달았다. 더 이상 윤회는 없다. 더 높은 삶이 성취되었다." 〈중부경전〉36

석가모니 붓다의 오도송悟道頌(깨달음의 순간을 찬미하는 게송)에 따르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면 "다시는 태어날 일(윤회)이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원리 · 만물의 원리가 명명백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미혹할 일이 없고, 두려울 일이 없으며,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그래서 "최상의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의 깨달음, 이름하여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는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다'라는 경지의 석가모니 붓다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까? 아마도 불교 미술에 있어 최고 최상의 화두일 것이다.

약 2500년 전 생생했던 붓다 대각(大覺)의 자리.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이다. 후대에 그 자리에는 붓다의 대각을 기리기 위해 대각사(大覺寺)가 세워지고 〈대각상〉이 안치된다. 하지만, 적어도 5세기경에 안치됐던 본래의 〈대각상〉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대각사가 참으로 다사다난하고도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쳤기 때문이다. 9세기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대각상〉 대신 〈시바상〉이 앉혀졌고, 12세기에는 무슬림의 침략으로 성지는 버려진 채 밀림 속에 묻혀버렸다. 우리가 인도 성지 순례에 가서 참배하는 현재의 대각상은 20세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드가야에 최초로 안치되었던 본래의 〈대각상〉을 고스란히 옮겨 재현한 것이 바로 석굴암의 〈대각상〉이라는 것이다.

미술사학계 원로학자 강우방 선생은 일찍이 "석굴암 본존상의 크기와 비례가 인도 보드가야의 대각사 불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기록에서 찾아 밝힌 바 있다.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가 정각(正覺)을 이룬 바로 그 자리에 대각사(大覺寺)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정각을 이룬 모습의 불상이 발을 괴어 오른발 위에 얹고/ 왼손은 샅 위에 뉘었으며 오른손을 늘어뜨리고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대좌의 높이는 당척(唐尺) 4척2촌이고 넓이는 1장2척5촌이며/ 상의 높이는 1장1척5촌, 양무릎 폭이 8척8촌, 어깨 폭이 6척2촌이다."

> 석굴암 내부적 핵심은 단연 '본존불'
> 석가여래상, 석가성도상 등으로 불려
> 인도 부드가야 있던 대각사의 대각상
> 후대 조성 석굴암 본존불 크기 같아
> 신라가 부처님 성도지임을 강조하려해

놀랍게도 석굴암 본존상의 크기는 현장이 기록한 이 수치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역사 속 사라진 〈대각상〉, 신라 땅에 재현

보드가야 〈대각사〉의 본존상이 7세기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 존재했는지는 당나라 현장법사(602~664)가 쓴 〈대당서역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기록을 보면 "왼손은 샅 위에 올려있고 오른손은 늘어뜨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항마촉지인'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대(大) 정각의 시점인 새벽 동이 틀 때를 그 방향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 법사의 기록보다 약 200년 앞서는 법현 스님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정각의 자리에)탑을 짓고 상을 만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기록에서 볼 때, 법현 스님이 목격한 본존상은 적어도 5세기 이전까지 소급되는 굽타 양식의 작풍으로 추정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본존상의 크기'(대좌 높이 당척 4척 2촌이고 넓이 1장 2척 5촌, 상의 높이 1장 1척 5촌, 양 무릎 폭 8척 8촌, 어깨 폭 6척 2촌)가 우리나라 석굴암 본존상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석굴암 본존상은 보드가야 본존상의 형식적 정통성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곳 통일신라 땅이 바로 붓다 성도지임을 천명한 것이다. 법현과 현장이 목격했던 대각사의 본존상은 현존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한 석굴암 본존상이 지구상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본래 원조격 〈대각상〉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대각상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조각상이 우리나라 경주 토함산 석굴암에 현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가치는 세계문화유산에 빛난다고 하겠다.

정확히 같은 크기의 몸체와 당시 유행했던 굽타 양식의 수려함이 석굴암 본존상에는 서려 있다. 결국, 석굴암 본존상을 바탕으로 보드가야의 본존상이 어땠는지 역추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 석굴암 본존상의 얼굴 모습은 당시 통일신라의 정서에 맞는 이상적인 한민족의 용모로 토착화되었다. 정확하게 동일한 크기는 차치하고라도, 편단우견(偏袒右肩)의 형식 · 양감(量感) 넘치는 몸체 · 얇디얇은 옷의 형식 등은 보드가야에 최초 안치되었던 본존상과 흡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깨달음의 특징, 육계와 광배

붓다 대정각(大正覺)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 즉, 깨달음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다를까? 불교미술 속 붓다의 모습을 보면, 깨달음 이전의 모습은 일반 속인의 모습이다. 태자 시절에는 긴 머리에 관을 쓰고 궁중 의복을 입고 있었고, 출가 이후에는 삭발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수행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대정각 이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은 모습은 깊은 선정에 든 선정인(禪定印)의 존상을 하기도 하고, 마구니를 항복시킨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존상이기도 하고,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설법인(說法印)의 존상이기도 하다. '선정인–항마인–설법인'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를 갖는 도상으로 모두 붓다의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중에서도 '항마인 또는 항마촉지인'의 수인이 대각 또는 대정각을 맞이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대표된다. 수인 이외에 깨달음의 기본적 특징 중 하나는 광배이다. 깨달음과 계합하였기에 몸에서 깨달음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신광(身光)으로,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두광(頭光)으로 조형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